



| 확대경 |

한국진공산업 기술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용역 소개

고중희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에서는 201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R&D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 진공산업 요소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적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수주받아 현재 정책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용역 수주 동기]

이 정책 용역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현재 우리나라 진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진공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책담당자들에게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시켜 정책에 입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진공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공산업의 현실]

우리나라 진공산업의 중요성은 학계나 연구기관 및 업계에서는 익히 잘 알고 있으나 유독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생산장비를 수입에 의존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최종 제품의 생산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만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진공산업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생산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진공소재, 부품기술 및 이를 이용한 장치산업의 기술이 먼저 발달되었어야 하나 그런 절차를 간과하다 보

니 아직도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진공산업은 더 이상 한물 흘러간 구닥다리 기술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핵심 요체가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첨단산업발전의 선 순환적 발전단계를 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공산업발전을 통한 선진국 진입]

잘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기초적인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다 보니(Catch-up Strategy) 이런 비정상적인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이런 국가적 정책 순위를 잘못됐다고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초창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도약기에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진국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이 시점에서는 이에 걸 맞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리라 하겠습니다.

지난 MB 정부부터 지금의 박근혜 정부에서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저성장의 지속과 청년일자리 창출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엄연한 현실은 바로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저자 약력>

고중희 국장은 1976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 2005년 11월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하였다. 1993년 미국 인디애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1년 핀란드 헬싱키 경영경제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였으며, 2005년 말 한국부품소재산업지원, 2009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거쳐 현재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 전무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johnny0604@hanmail.net)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기초과학의 발전을 간과하고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아주 어렵다하겠습니다.

경제발전 초창기에는 연 평균 8%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중진국 수준 이상으로 진입하게 되면 특별한 성장 엔진 없이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성장엔진의 고갈현상을 직시해 볼 때 어디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지가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첨단핵심기술로서의 진공기술]

바로 이런 성장동력의 첨단 핵심기술의 바탕이 되는 기술이 바로 진공기술이라는 당위성이 모두의 의견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진공기술정책의 추진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금은 늦기는 했지만 시의 적절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산업분류표에도 진공산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기술계 고등학교나 대학 등에도 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얼마나 진공산업기술이 그 동안 등한시 되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공관련 국가기관으로 유일한 기관인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구조합에서는 그 기초연구를 바로 이 진공산업발전 정책연구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진공기술연구조합의 막중한 역할 기대]

이 연구를 통해 우리 연구조합은 우리나라 산업분류표의 개정,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공학과 설치 및 진공기술인력양성프로그램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삼성, LG 등과 같은 대기업에서 수요로 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등 첨단 생산장비 및 부품/소재의 국산화 전략 수립과 진공산업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공산업의 클러스터화 전략 및 진공기술장비의 공동 이용계획 등을 통해 지금 까지 소외되어 왔던 진공산업계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의 발전을 위

해 기술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도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바이오/의료, 진공열차, 진공물류시스템, 진공단열제와 같은 건축자재 생산, 우주발사체 등 이루어질 수 없는 첨단산업의 기저에 바로 진공기술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주력 및 뿌리산업의 정책추진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 필수불가결한 창조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한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진공기술요소산업의 실태 파악을 통해 진공산업의 규모, 업체 수, 생산실적, 수출입동향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요 경쟁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및 중국 등 후발국의 진공 부품소재 산업의 동향 파악을 통해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셋째 첨단 진공요소기술 수준의 파악을 통한 R&D 지원방안수립으로 전방 산업의 품질향상 및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코자합니다. 진공기술요소산업의 R&D 지원방향을 부품산업의 동향 파악을 통해 진공산업 발전방안을 모색코자합니다.

넷째 진공산업계의 기술수준, 인력수급의 어려움, 마케팅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수립과 특화된 지원을 통해 내수 공급 및 수출능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진공기술산업 제고방안 정책용역을 통해 첨단 진공기술개발 정책수립을 위한 로드맵 작성 및 세부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국가간 FTA 활용극대화 및 수출촉진을 위한 기초자료, 진공기술산업계의 경영전략 수립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의 자료와 국가적 진공기술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진공기술이 정부 관계자나 산업에 걸쳐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포럼, 세미나 등을 산학연관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